돈이 나를 짝사랑하게 하라

(예레미야 25:1~38)

27.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28.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9.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돈이 나를 짝사랑하게 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돈이 나를 짝사랑하게 하라'
오분쉼표의 "티 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삼각관계 안에서 남자를 짝사랑하는 입장에 있는 한 여성의 심정을 담은 가사입니다. 문학인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 가사가 제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날 향한 웃음은 아니지만
그 웃음마저 설레버렸죠
그대가 그녈 보며 웃어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강력한 감수성이 전해집니다. 아프고 슬프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아픔이 잘 느껴집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며 웃고 있는데 질투보다 설렘을 느낄 정도로 이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사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는 그대 그런
그대 곁을 맴도는 나
숨기지 말아요 그대는 지금

티 내지 않아도 그댄 티가 나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죠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대가 행복해 보여
티 내지 않으려는 나도 티가 나도
티가 나도 그댄 모르겠죠
그대는 그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향해 가는데 너무 행복해보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말없이도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그런데 얼굴에서 티가 나는 것은 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남자가 화자의 감정은 눈치 채지 못합니다. 짝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생합니다.
이 노래에서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향해 티를 내고 있고, 화자도 남자를 향해 좋아하는 티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티가 납니다. 또 그것을 가지게 되면 티가 나고 못 가질 때에도 티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티를 내는 이유도 같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시로 든 티내기의 맥락에서 생각해보자면 선민은 바로 이 티내기의 이유가 다른 자들입니다. 티는 나는데 티가 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민이고 그래야 선민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이유는 이웃사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이웃 사랑은 티내기입니다. 노래 가사에서 '그대가 그녈 보며 웃어요'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먹고 있는 티내기가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티내기가 유별나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좋아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서 행복한 티가 납니다. 그러면 대충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든지 승진을 했든지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했든지 등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행복의 원인을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민은 이러한 추측이 빗나가는 대상입니다. 분명히 행복한 티를 내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유를 짐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선민이고, 선민의 티내기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건강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

런데 얼굴에서 행복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민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자들 중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광경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대체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에서 행복한 티가 벗겨지질 않습니다. 사울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과 사울을 향하여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이웃사랑은 바로 이렇게 행복한 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웃사랑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기 위해 앞서 보았던 노래를 다시 한 번 인용해 봅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는 그대 그런
그대 곁을 맴도는 나
숨기지 말아요 그대는 지금
티 내지 않아도 그댄 티가 나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죠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향해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나 일류대학 입학이나 승진 등을 의인화해서 가사의 화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선민들이 그대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에게만 오면 외면당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가치들을 가지면 행복해하고 못 가지면 슬퍼하는데, 유난히 선민들만 좋아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미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향해 '날 좀 봐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민의 모습입니다.
돈이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돈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돈에게 구애를 보냅니다. 돈을 향한 세레나데가 지구 위에 하루 종일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미 행복한 나에게만 오면 돈은 외면을 당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세상의 가치들이 오히려 나를 짝사랑하게 되는 것이 선민의 삶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짝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야 말로 이웃사랑의 절정이자 참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이제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앞선 열한 편의 설교에서 계속 선민 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설교인 열두 번째 설교입니다. 11절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유다 백성들이 칠십 년 동안 이국의 왕을 섬기다가 풀려나게 될 것이 예언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앞선 열 번째나 열한 번째의 설교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서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BC.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행해진 예언입니다.

이러한 남 유다에 대한 예언 이후에는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대한 멸망 예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예레미야서의 남은 부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민족의 심판을 함께 언급하는 것일까요? 특히 29절을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을 통해 치실 것이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를 통해 치시리라는 것입니다.

꼭 남 유다 왕국에 인접한 국가들이 아니더라도 나라의 흥망성쇠는 언제나 있어온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임을 밝히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민의 티내기를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나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은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생활화하는 선민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으로써 그 은총이 주변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선민들은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를 생활화함으로써 개개인이 하나님과 괄호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마음에 세상의 가치를 담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며 사는 이방인들과 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온 상태를 번제단의 어린양과 함께 죽임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과 괄호로 묶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족되면 삶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먹은 티를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티내기가 선민들로부터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가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민들로부터 막히게 됩니다. 선민들이 하나님 티내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예외 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우상의 이름은 제각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풍요와 다산은 기쁨과 만족의 조건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얻은 사

람은 일시적으로나마 기쁨의 티를 냅니다.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으로 기쁨의 티를 내는 자들이 선민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만족을 확장시켜 나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티내기는 선민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주변 모든 이방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생겨납니다. 유다 나라가 잘못했으면 유다만 망하게 하시면 되지 왜 주변 국가들까지 망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실상은 덩달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멸망의 숙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멸망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본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멸망의 숙명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는 하나님을 먹은 티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돈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흠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민들은 세상의 가치가 없는데도 행복한 티가 납니다. 돈이 없어도 부흥이 안 돼도 번영하지 않는데도 이미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티 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라는 노래 제목처럼 행복을 자랑하지 않는데도 행복한 티가 납니다. 세상 가치들이 보기에 선민은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선민을 짝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와 다산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들이 없는데 행복해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주변 이방국가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야 말았습니다. 돈이 선민을 짝사랑하기는커녕 선민이 돈을 향해서 '날 좀 봐줘요'라고 구애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라면 선민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티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방 국가들도 선민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관심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선민은 존재의미를 잃었고 이웃의 이방 국가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숙명적 멸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과 괄호로 묶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에 강제로 묶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티를 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나님

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으로 하여금 짝사랑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 보일까?'라는 질문이 생기도록 행복한 티가 나야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선민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선민이 가진 인생의 목적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과정 뒤에 나타나는 결과도 아닙니다. 선민의 인생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목적에 대한 티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달성하기 바라는 인생의 목적이 선민에게는 이미 달성된 출발지점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외가 없습니다. 더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아 달려갑니다.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는 더는 추구함이 생길 수 없습니다.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더할 나위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더할 나위없는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믿기라도 하는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믿는 만큼 티가 납니다. 또 이러한 티를 내는 것이 선민이 할 수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이 보는 앞에서 이 세상의 돈이나 명품 혹은 형통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티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라는 노래의 제목처럼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과 같은 광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만, 선민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들이 선민을 짝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선민들이라는 자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욱 세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풍요와 다산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나도 망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달성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인정하기를 반복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괄호로 묶이게 됩니다. 이로써 인생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더 살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남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돈이나 승진 등의 가치가 가장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은 그 가치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 돈이나 승진은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입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시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다 가졌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동안 하나님을 많이 가지고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에 나갈 때에 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이 '날 좀 봐줘요'라고 짝사랑을 할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류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얼굴에 행복한 티가 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직 체감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임을 알고 이론적으로라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날 좀 봐줘요'라고 나를 짝사랑하게 만드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하나님과 괄호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행복한 티가 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배우자가 보고 자녀들이 보며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치들이 아우성치며 짝사랑하는 모습을 이웃들에게 확인시켜주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괄호로 묶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을 많이 번 티를 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치들이 나를 짝사랑하며 아우성치는 모습을 모든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